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 사회위기 대응력 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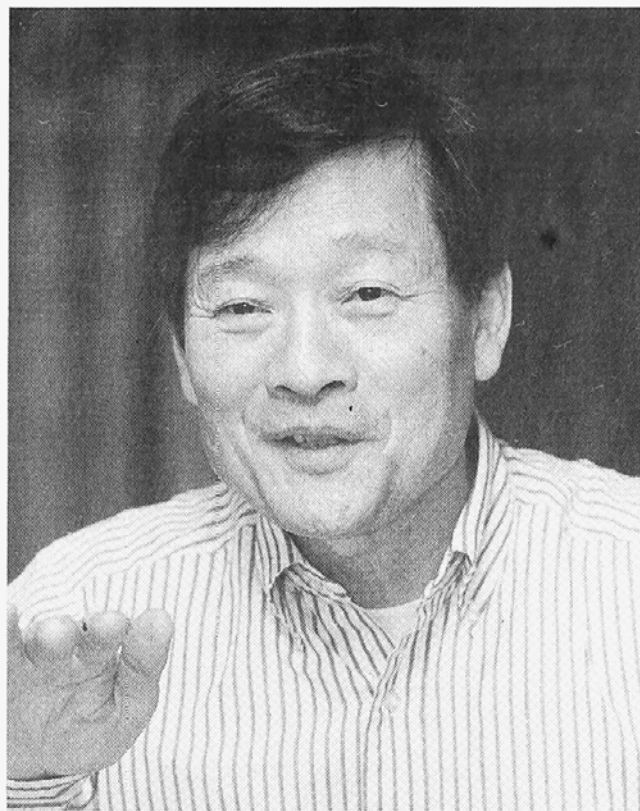
뉴욕주립대에서 한국불교학을 강의하는 박성배교수(63)가 지난 11일 1년 여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짧은 방문 학기간을 이용해 서울대와 뉴욕주립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학연구교재 편찬을 위한 편집회의에 참석키 위해서다.

박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뉴욕주립대측 편집책임자다. 13일 박교수를 만나 미국에서의 불교학연구 동향 및 한국불교에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그의 명함에는 중앙철학 교수라는 직함과 함께 '한국학 프로그램 디렉터'라

사투리를 듣는다는 것은 반가움이었다. 어쩔 수 없는 한국사람이다.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서양의 학자들은 미국인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한국불교가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3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교하면 그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든든한 일이다.

"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란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인 제자들이 '그런 말은 학자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한국학연구교재 편집회의 참석한
뉴욕주립대 박성배 교수

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은 직함이 적혀 있다. 한국학연구교재는 뉴욕주립대에서 출판해 영어권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불교학은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특강을 요청했기 때문. 한국에 들르는 길이고, 특강을 부탁한 사람이 그의 지도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윤원철교수(종교학)인 까닭에 거절할 수 없어 흔쾌히 승락한 것이다. 특강주제는 '문자-문자 문화의 갈등과 화두선'이다. 선과 교, 나아가 동서

지적하지요. 버릇이 났는지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일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그는 한국불교에 계속 메시지를 보낸다. 돈점논쟁에 참여하는가 하면 매일 두차례씩의 칼럼을 통해 불교의 내일을 전망한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핵심은 개인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지존과사건이니 박한상사건이니 너무나 어이없는, 세기 말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이는 우리 문

‘근본’ 세워야 구제길 열려... 불교학 과제

美, 한국문헌연구 수준급... 서울대와 교재 공동제작

양문화 비교하고 선의 입장에서 두 문화사이의 갈등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강연의 요지이다.

"한국학연구교재는 불교 유교 언어 문학 예술 음악 정치 경제 등 11권으로 출판됩니다. 집필은 서울대측에서 맡고 편집·출판은 뉴욕주립대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의 사상을 영어권에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불교분야는 서울대 심재홍교수(책임 집필자)와 5~6명의 학자들이 참여,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사상을 정리하게 된다. 아울러 그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대산재단에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라고 밝혔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간혹 남도의 억양이 튀어나온다. 표준말로 하면 '꽤' '많이'로 풀이되는 '술참이'라는 사투리도 섞여 있다. 지난 77년 뉴욕주립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20년 가까운 세월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서 남도

명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우리 불에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조짐을 나타내듯이 사회도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뭔가 불길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불길함의 중심은 개인이 죽는 것입니다. 개인이 죽었다하면 인간의 물질화 평균화 가치상실을 뜻합니다. 개인이 죽어서는 사회의 보편적 고민을 깨안을 수 있는 보살도 없고, 사회 구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살아야 한다는, 불교말로 하면 체(體)를 세우자는 얘기를 해 온 것입니다."

불교와 불교학의 과제를 이렇게 설명한 박교수는 이런 문제가 불교학연구와 신앙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정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스님들의 어록속에 담겨진 것은 물질화된 인간을 해방시키자는 것이며, 불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퇴계의 사단칠정론도 인간의 삶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의 문제라

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교수는 "제가 약하다"는 말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진단했다. 운동선수들 빛대 "기술만 익혔지 기초체력이 없는 상태가 한국불교"라는 것이다. 즉, "선가에서 흔히 말하는 '앞생각 뒷생각이 북북 끊어지는' 순간 순간의 자유로움, 생명의 품틀거림을 체험하는 선의 전통이 퇴색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잠깐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음이 철보로 탐을 쌓는 것보다 낫다"는 가르침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더욱 큰 일은 문제점도 던져지지 않는 한국불교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물으니 "느닷없이 방랑이질을 했듯이, 문제를 던져주는 기개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와 했다."

미국의 불교학연구에 대해서 박교수는 "미국사람들에게 불교는 외국의 문화현상이며, 따라서 이질감이 의외로 크다"는 견해를 밝히긴 했어도 서지학적 측면에서 매우 앞서나가고 있다

고 평가했다.

"미국의 한국불교학 연구수준은 불교 문헌을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로, 문헌비판과 언어·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서지학이 상당히 발전돼 있습니다. 6백년의 역사를 갖는 기독교성서학 연구성과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불경학자'라는 말 자체도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앞선 수준입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학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도 전해주었다. 대학이라는 거대한 구조와 학회 또는 저널이라는 다양한 기구의 활동 덕분이다. 그러면 서 그는, 미국불교가 더욱 발전하려면 신앙단체가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불교에 대한 구도적 열정을 지퍼줄 수 있는 학문외적 충격이 따러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 중도와는 대조적이지만,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성운 기자>

나의 수행일기

16여년 동안 반신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입장중생에게 무슨 수행담이 있겠습니까. 그저 40여년 동안 시를 삶의 등불로 하고 불심을 영혼의 등불로 삼아 입장중생을 위해 인간됨을 쓰며 풍부림쳐 왔을 따름입니다.

수행이 뭐 따로 있었습니까. 밥먹고 통사는 일도 수행이라면 다 수행이 아닐까요. 시를 쓰는 시인이고 보니 시를 쓰는 일 또한 수행이겠지요. 그래서 불교시를 많이 쓰고 있으며, 이번에도 투병 이후 아홉번째 시집인 <반야의 산바람 물소리>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자비공덕입니다.

시인으로서의 내 아호를 '여천(如泉)'이라 했으니, 감로수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뉴욕의 당호는 여천암이라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여천암에는 황공스럽게도 본존불로 석가모니불, 협시불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후불탱화로 아미타불 등을 모시고 일찍이 스님을 모셔다가 집안 불사까지 했으니깐요.

나는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지 않



랑승만 (시인)

아지고 발전하는 것은 아니듯이, 사찰의 불사에는 큰 시주를 하면서 이웃을 돕자는 호소에는 각박해지는 불교계 풍토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1992년 봄, 문운사 승가대학의 초청을 받고 다녀오는 길에 경북 포항시에 사는, 신체 장애로 전신마비가 되어 얼드러만 살며 시를 쓰는 이상열씨를 만났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는 한편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빠짐없이 조식 예배때마다 그의 왜유를 비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수행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감히 수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당부이며, 작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삭발위승 출가사문의 몸이 아니니 도반이 어디 따

장애인과 아픔 나누며 불구 극복

‘불명 如泉’...이웃위해 감로수 되겠다는 서원

습니다. 조석으로 예불 독경 기도생활(주로 장애인들, 병든 이들을 위해)로 대차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루하루 일체 중생이 구제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7년에 수승한 인연이 있어 저 유명한 <산골소녀 육진이(蔚集)>를 내준 이후 전국 각처에서 장애인을 비롯해 재소자들까지 시집을 내달라, 약값 좀 보태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곡했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힘으로, 더구나 내자신도 반신불구의 몸인 탓에 그들에게 따뜻한 보시의 손길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천암 부처님께 원을 세우기를, 장애인들과 병든 이들의 아픔과 눈물의 길을 나눌 길을 열어주소서,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5년전에는 '바라밀시화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애자와 재소자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의 두터움이 부덕의 소치로 나타나 그만 빛만 지고 장애인들과 뜨거운 눈물을 뿌리며 헤어져야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가람만 크게 짓는다고 불교의 위상이 높



로 있었습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의 고통이 있는 한 그들이 모두 너의 부처님이요, 도반이라고 생각합니까.

몇해전 불교방송의 '여성만세'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언제였냐고 물기에 "나는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으며,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불성을 타고 태어났는데 따로 계기가 어디에 있는냐"고 답변

했습니다.

이 삭막한 시대에 진정한 자비구원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받는 중생들과 아픔을 나누는 헌장이 바로 피안이요, 불국토가 아닐까요. 예불 때 내 기도의 첫마디는 '일체 중생을 구제해 주소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내 앞에 갔다놓지 말고 불쌍한 이웃에게 갖다주는 것이 진짜 불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심부름꾼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있으리, 이 언어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나무마하리라하리라.

계룡산 자광사 정대불사 보살계 탐돌이 기도안내

■ 일시 : 입제일 : 1995년 4월 6일 목요일(음 3월 7일) 오전9시
회향일 : 1995년 5월 23일 화요일(음 4월24일) 오전9시

귀의 삼보하옵고 화엄종찰 계룡산 자광사는 탄허(呑虛)대종사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불교의 대승 화엄사상을 제승발전시켜 조국통일, 국래민안, 불일증회등을 위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도량으로 연례적으로 정대불사·보살계·탐돌이 기도등을 봉행하고 있는바 금번에는 3층 대법당 감로탱화 조성점안등을 봉행하오니 무루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 3월 10일

• 증 명/조실 : 박비룡
심학상/전계사 : 정도원 갈마사 : 석천운 교수사 : 김현해
설 법/변각성 안혜거 이원형
유 나/해 광 인 레/법 안
• 동참금 : 25,000(영가 1인 5,000)

☎ (042)822-6472~73
 ☎ (042)822-9219~20
 FAX (042)822-8304
 대전 광역시 유성구 학동 649번지

계 룡 산 자 광 사